

최고기 이력제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소 개체 전산관리 요령 교육 실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접종 소에 대한 이력을 최고기이력시스템(www.mtrace.go.kr)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0년 12월 24일부터 '11년 1월 13일까지 8개도 103개 시·군·구의 해당 공무원, 위탁기관 담당자, 백신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관할지역의 전담직원을 파견하여 최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한 전산 입력요령(소 개체 출력, 귀표부착 요령, 접종 소 입력요령 등)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시·군·구에서 예방 접종소의 정보 관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방역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경기지역

김포시,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경기 김포시는 지난 1월 11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돼지 우제류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축산농가의 가족시설에 한해 2011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가 감면된다. 또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는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나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갖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연천군,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운영

연천군 정신보건센터는 지난 1월 5일부터 구제역 종로시까지 방역공무원 및 축산농가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연천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돼지의 대규모 살 처분 진행으로 인해 공무원 및 축산농민의 정신적 충격 등, 고통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연천군 정신보건센터는 공무원 및 축산농가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5일 연천군청 및 대상축산농가에서 방역공무원 및 축산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척도, 우울척도) 실시한다. 선별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2차 선

별 검사 및 정신과 전문의 2차 진단하여 치료 연계한다. 또한 2월 첫째주에는 축산농민 주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지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충남도는 구제역이 충남에서까지 발생하면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군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족시설에 대한 납년도 재산세는 시·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하게 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의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개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전남지역

신안군, 축산시험장 등 신안 이전 건의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이 축산 전문 연구기관을 방역이 쉬운 섬으로 이전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신안군은 지난 1월 10일 건의문에서 "국가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종축장과 분산장이 위치한 지역까지 구제역이 확산되거나 구제역에 노출되면서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

고 통제가 쉬운 신안 섬 지역으로 이들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축(씨수소)을 보유하고 우량 한우 유전자 보존과 선발 등을 전담하는 축산전문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시험장은 강원 대관령에 있다. 농협 중앙회 젖소개량사업소와 한우개량사업소는 각각 경기도 양주시와 충남 서산시에 있다.

영광군,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중

영광군에서는 오는 2월 14일까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사업은 농촌개발·축산·수산분야 등 3개 분야 총 98개 사업이며 이외에도 지역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할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청이나 읍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업 관련기관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061-350-5372),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역

부안군, 2012년도 농림사업 신청

전북 부안군은 2012년 시행할 농림수산 분야 지원 사업을 1월말까지 접수받는다.

지원 사업 대상은 영농규모화사업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 농어업에너지효율화 산림소득증대사업 축산시설현대화 등으로 지난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군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농어촌공사 축협 수협 농협중앙회부안군지부 지역농협 등 인내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익산시 7개 분야 농림사업 신청

전북 익산시가 1월 말까지 내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 사업은 식량, 원예, 식품, 산림, 농촌개발,

축산분야 등 모두 7개 분야 90개 사업으로 농림사업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시청 농산과, 축산관리과, 산림공원과,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농림자율사업신청서, 농림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경북지역

구제역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등 지원

경상북도는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축사 등 가축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해 징수유예 조치가 실시되며 기간은 6월 이내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석달 이내(최대 9개월 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는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을 받아 징수유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지역

서귀포시, 축산분야 213억원 투자

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축산분야에 213억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1월 7일 밝혔다. 시는 축산분야 사업으로 제주 축산물 급료별화, 한(혹)우·양돈 향토산업화, 말·양계 산업 새로운 축산소득원 전략적 육성,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 등을 수립했다. 또한 녹색 축산사업장 조성, 악성 가축전염병 없는 'Free Zone제주' 구축을 위해 전년대비 24%의 예산을 증액했다. 시는 "올해 축산분야 전 사업에 대해 2월 중 대상자선정 하는 등 상반기에 예산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